

**土種 홍화씨**  
 영양산 토종 홍화씨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종과 품종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1월 한달간 개최하는 '이달의 문화재'에 전시된 납석제선각여래·나한좌상 등 8구의 불상을 청소년들이 다리미모양의 납석에 조각된 친근한 모습의 불상을 가리키며 즐거워하고 있다.

## 수장고서 나온 불상 8구 '볼거리'

**국립중앙박물관 11월 '이달의 문화재'**  
**매장문화재 신고→보존→감정 과정 공개**



○ 고려시대 금동여래좌상. 대구시 중구 대동동에서 발견된 이 불상은 역삼각형 얼굴, 가는다린 허리, 이중 연화대좌 등 당시 유행했던 리아교 형식을 반영하고 있다.



○ 고려시대 소조나한좌상. 강원도 철원군 이문면에서 발견된 이 나한상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듯 주름살등 얼굴조각이 생생하다.

악초를 캐러 산과 들을 누비다 혹은 토목공사나 개간, 묘소이장 등 우연한 경로로 땅이나 물 속에서 발견된 문화재들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고 본래의 면목을 찾게 할 수는 없을까? 이 방법을 알고 싶은 볼거리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11월 한달간 개최하는 '이달의 문화재'전을 찾으면 된다.

'납석제선각여래·나한좌상' 등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 8구의 불상들이 선보인 이 전시회에는 문화적 가치를 떠나 선대의 불심(佛心)과 예심(藝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또 매장문화재의 신고 절차와 보존·감정·평가 그리고 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그 사실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관할 경찰관서에 7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발견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신고된 발견매장문화재는 소유자 확인 및 감정·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을 거쳐 국고에 귀속조치 후 국·공립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게 된다.

1961년부터 1999년 9월까지 매장문화재 가운데 4,321건 총 47,115점이 국고로 귀속되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와 성격을 지닌 문화재들도 적지 않다. 매년 100여건의 매장문화재가 발굴·출토되고 있으며, 이중 성보가 60~70%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납석제선각여래좌상 1구' '납석제선각나한좌상 4구' '금동여래입상 1구' '금동여래좌상 1구' '소조나한좌상 1구' 등 불상 8구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보관되어 왔다.

아기같은 귀여운 얼굴의 표현과 서투른듯 간결한 솜씨의 칼새김으로 납석에 그린 여래·나한좌상은 한국적 조형미를 잘 보여주는 불상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이 불상들은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 주포리에서 묘소이장 중 발굴되었는데, 일련에 처음 공개되었다.

재질 큰 여래좌상은 본존으로 하고 각각 좌우에 나한상 4구가 배치되도록 구성된 납석제 선각여래·나한좌상은 조선시대 어느 민가의



○ 처음 공개된 조선시대 납석제선각여래 나한좌상. 광배를 나타내는 다리미에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불상이 친근한 느낌을 준다.

불단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납석(鐵石)은 '곰돌'이라고도 하는데, 기름과 같은 광택이 있어 양초같이 매끈매끈한 광택으로 예로부터 민가에서 석필, 조각재 등으로 애용되어 왔다.

소조나한좌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며 얼굴은 두 눈과 양볼을 깊게 조각하여 부피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총하게 새겨진 이마의 주름살을 통해 수행자의 생생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문면에서 발견된 이 나한상은 고려 후기에 조성된 오백나한상의 하나로 추정된다.

대구 대동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좌상은 원주형의 높은 육계와 역삼각형의 얼굴, 가는다린 허리, 이중 연화대좌 형식 등으로 보아 고려후기에 유행하였던 원나라 리아교 계통의 불상으로 보인다.

강원도 철원군 내면면 물전리에서 발견된 금동여래입상은 방향의 얼굴과 신체, 선각의 옷주름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내린 통인(通印)을 취하고 있으며, 손바닥 손금이 치밀하게 선각되어 있는게 특징이다.

이들 매장문화재들은 발견 당시 예술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발견 초기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일대 유적군(群)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고래(古來)의 유물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으로 복원, 보존, 전시 등의 과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하며, 또 중요한 유물을 발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만큼 매장문화재 신고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는 김윤림 학예연구사(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의 지적에 귀 기울여 볼적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연대가 밝혀진 불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관학계의 주목을 받아 온 고구려시대 '연가7년명 금동불상'도 1983년 풍네 산기슭에서 축을 깨던 김갑순 아주머니에 의해 발견·신고된 것이다. 김씨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백만원이라는 보상금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 관장은 "매장문화재를 신고하는 것은 다 죽어가는 문화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인들이 매장문화재의 신고와 처리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나한상 상호-이중섭 그림 "담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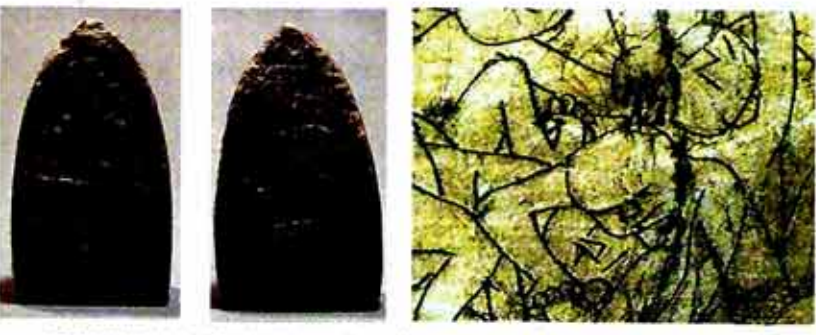
최근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 50년'에 황소가 선보이고 있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2가중 하나인 이중섭(1916~1956). 이중섭의 2박지그림의 '벌거벗은 아이들'의 얼굴이 조선시대 '납석제선각여래·나한좌상'의 천진난만한 상호와 비슷해 화제.

'73년 강원 원주에서 출토된 '납석제선각여래·나한좌상'의 상호는 눈·코·입 등이 간결한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중섭의 그림을 감상시키는 부분은 바로 나한상의 얼굴. 나한상의 소박하면서 천진난만한 얼굴 선이 이중

섭의 은박지 그림 '벌거벗은 아이들'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것. 차이가 있다면 나한상의 눈에는 눈동자가 있고 이중섭 그림의 아이들의 눈엔 눈동자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상을 새긴 이름없는 예술가와 현대화가 이중섭. 이들 사이에 세월의 두께가 쌓여있음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맞닿아 있는 듯 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김윤림 학예연구사는 "이중섭이 고려청자에 그려진 동자의 모습을 연구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 조선시대 납석제 나한상(왼쪽)과 이중섭의 '벌거벗은 아이들', 눈·코·입을 표현한 선과 그림이 이미지가 흡사하다.



○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악함을 든 약사불은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데 3종의 두광과 신광, 그 주위를 화염문이 둘러싸고 있다. 고려초기 불상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 마애불을 찾아서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결가부좌 한채 화염문 둘러싸여  
 고려초기 불상연구 귀중한 자료

알맞게 솜은 바위 남면에 새겨진 이 약사불좌상은 태평2년 정축 7월 29일이라는 명문이 있어 고려 경종 2년(977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화좌대위에 악함을 든 약사불이 결가부좌로 앉아있는데 광배는 3종의 두광과 신광, 그 주위에 화염문이 둘러싸고 있다. 나발의 머리칼, 단정하고 부드러운 얼굴표정, 단정한 체구, 형식적인 옷주름 등의 양식적 특징은 통일신라시대보다 진전된 새로운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문이 있어 고려초기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하며 보물 제 981호로 지정돼 있다.

글·사진=불자포교사건연합회 (011-337-7312)

###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 말면 달마도 ▲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釋尊 대표로는 인공로 제정함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백을 차안하는 등 천장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 뒤에 새겨서 상용화(실용신안등록 No.24265호)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용으로 선보인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 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배현 윤용우 신상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포팅함으로써 젓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처, 이등등 어떠한 문안이나 액자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넷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투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진신 달마도를 고급 프구역재(27cm×33cm)화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예쁜 문중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삼면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업체: 한국 지앤세 (2447년 공영일계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 영일점 모집